ABS, 수요급증 불구 수익악화

가격 올려도 수익압박은 여전 … 재고량 매우 낮아 수요증가 기대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및 SAN(Styrene Acrylonitrile) 세계시장이 에너지 및 원료코스트 급등으로 2003년 1/4분기에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BS 생산기업들은 수차례 가격인상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마진을 회복하는데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요는 양호하나 미국경기가 아직 불안하고, ABS의 최대시장인 아시아는 SARS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Dow Chemical에 따르면, 2003년 1/4분기 ABS 수요는 2002년 4/4분기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유럽 및 태평양 지역에서 강세를 나타냈고 북미수요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SAN 수요는 지난 몇분기 동안 강세를 보였는데, ABS 수요가 증가했고 Transparent 분야의 SAN 수요가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Dow는 남은 2003년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지역이 SARS 발발로 도전을 받고 있어 2003년 2/4분기 수요가 1/4분기보다 둔화됐으나 동시에 긍정적인 조짐도 임박했기 때문이다.

북미경제가 최근 상승세를 보여 아시아 · 태평양의 내구재 주문이 증가했고 1/4분기 구매 자제로 원료 재고량이 극히 낮아진 점이 호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Bayer Polymers Americas 또한 2003년 1/4분기 ABS 시장이 2002년보다 강세를 나타냈으나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높은 원료코스트가 마진을 압박해 예상보다 낮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남은 2003년 상황도 2002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GE Plastics은 2002년 4/4분기 및 2003년 1/4분기 원료가격이 유례 없이 상승하고 세계시장 경쟁이 격화된 점이 ABS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GE는 2003년 역시 도전적인 한해가 될 것으로 보고 소비자 서비스 및 생산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생산기업들은 2003년 1/4분기 동안 높은 에너지 및 원료코스트를 상쇄하기 위해 ABS 및 SAN 가격의 대폭 인상을 추진했다. Dow는 4월1일부터 톤당 200유로 또는 파운드당 7센트 인상했고 앞으로도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yer 또한 ABS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나 마진이 크게 감소했고 가격인상분이 원료급등을 상쇄하기에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SM(Styrene Monomer) 가격은 유도제품의 수요감소로 하락하고 있지만 기타 원료인 Acrylonitrile 및 Butadiene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Dow는 네덜란드 Terneuzen의 신규 ABS 플랜트를 2002년 말 풀가동했다. Dow 플랜트는 북미 3곳, 유럽 1곳으로 ABS 약 7억파운드를 생산하고 있는데 증설로 생산능력이 8억5000만파운드까지 확대됐다.

Bayer Polymers는 Pittsburgh 소재 본사의 R&D 역량을 강화하는데 수백만달러를 투자했고 최근 신규 폴리머 연구센터를 개설해 Thermoforming 및 Coextrusion 분야에서 ABS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GE Plastics은 내후성 폴리머 수요에 주목하고 있는데 핵심제품은 Geloy ASA 수지이다. GE는 차세대 ASA 내후성 제품인 Geloy XTW를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색체 및 디자인이 다양하며 기존 ASA에 비해 내후성이 2-3배 높다.

아시아에서는 LG화학이 중국 및 국내 ABS 생산능력을 80만톤으로 확대했고 2003년 초 중국 Zhejiang의 Ningbo 플랜트를 30만톤으로 확대했다.

Dow는 2003년 ABS의 세계수요가 95억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소비비중은 아시아 67%, 유럽 17%, 미국 15%, 라틴아메리카 1%로 보고 있고, 향후 5년 간 ABS 수요신장률은 북미 3%, 유럽 204%, 아시아 · 태평양 5-7%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Bayer은 북미시장 성장률을 1.5-1.8%로 보고 있고, LG화학은 중국시장이 2005년까지 연평균 8.2% 성

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3/6/30>